

# 1930년대 김종량의 H자형 한일절충식 도시주택

백 선 영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박사수료)

전 봉 희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

주제어 : 김종량, H자형 주택, 한일절충식주택, 근대 도시주거, 1930년대

## 1. 서론

이 연구는 1930년대 경성부라는 시대상황 속에서 'H자형 韓日折衷式住宅'이라는 특별한 주택을 제시한 김종량의 주거실험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러한 주택이 갖는 특징과 의미를 밝히고자 한 연구이다.

1930년대 경성부의 심각한 주택난<sup>1)</sup> 속에서 빠르고, 값싸게 그리고 보다 넓은 면적을 갖는 주택의 공급이 요구되었다. 이로 인해 주택을 전문적으로 공급하는 주택경영업자들이 생겨나게 되었고<sup>2)</sup>, 이들이 공급하는 유형화된 주택형

식이 등장하게 되었다<sup>3)</sup>. 이렇듯 하나의 상품화된 주택형식이 경성부에 대량으로 공급되는 가운데, 기존의 ㄷ자, ㅍ자 등의 주택형식이 아닌 대안으로서의 'H자형'이라는 특수한 공간구조를 갖는 주택형식이 당시를 대표하는 건축가들과 주택공급업자들에 의해 제시되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건축가이자, 경성에서 주택경영업자로 활동했던 김종량이었다. 당시 김종량은 여러 가지 새로운 주거형식을 시도하였으며, 그 중 1934년 혜화동에 H자형의 평면구조를 갖는 한옥을 두 채 설계, 시공하였고, 몇 년 후 대규모로 개발된 삼청동에서는 H자형의 평면 구조를 갖는 한일절충식주택을 여러 채 설계, 시공하면서 'H자형'이라는 특수한 형태의 주택을 도시주거의 하나의 대안으로서 실험적으로 공급했던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먼저 김종량의 건축활동과 1930년대 경성부 도시주택에 대한 그의 생각을 살펴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SIR BK21(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기반건설)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1) 1929년 5.77%였던 주택부족률은 1935년 22.46%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심각한 주택난 속에서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借家하게 되는데, 1929년 12월 통계에 의하면, 경성부 조선인 借家가구는 30,000여 호(전체 조선인 호구: 51,237호), 조선인 借家人은 141,000여 명(전체 조선인 인구: 241,196명)에 이를 정도로 그 문제가 심각했다. (『동아일보』, 1930.02.21.)

2) 신축 주택 중 대표적인 유형은 주택경영회사에서 공급했던 도시형 한옥이었다. 따라서 이를 공급하는 건양사, 공영사, 마공무소, 오공무소, 조선공영주식회사, 동경건물회사 등의 주택경영회사의 수와 자본금은 급증하였다. (박철진, 「1930년대 경성부 도시형 한옥의 상품적 성격」,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대학원, 34-36쪽, 2002.)

3) 이렇게 도시형 한옥이 신축주거의 주된 유형으로 자리 잡은 이유는 저렴하고 빠르게 공급 가능한 도시주택이 요구되었던 시대상황에서, 그것이 당시 다른 구조의 주거용 건물보다 경제적이었기 때문이었다. 도시형 한옥은 하나의 상품으로서 작용하여, 규격화된 재료와 평면형을 사용하였기에 생산의 측면에 있어서 높은 경제성을 가졌던 것이다. (박철진, 앞의 논문.)

봄으로써 H자형 韓日折衷式住宅에 담긴 그의 의도를 찾고자 하였다<sup>4)</sup>. 다음으로는 1930년대에 나타난 H자형 주택과 계획안<sup>5)</sup>을 살펴봄으로써 이러한 유형의 주택이 갖는 특별한 성격을 밝히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를 바탕으로 김종량의 H자형 한일절충식주택들이 1930년대 경성부 도시 주거로서 어떠한 의미와 한계를 갖는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1930년대 경성부라는 시대상황을 이해하기 위하여 당시 간행되었던 정기간행물<sup>6)</sup>들을 살펴보았다. 김종량의 주거실험을 살펴보기 위해서 각종 人名簿, 인터뷰 등을 참고하였고, 현재 남아있는 그의 H자형 주택 중 조사가 가능한 혜화동 22-24번지 한옥, 삼청동 35-82, 35-90, 35-202번지 한일절충식주택을 실측조사<sup>7)</sup>하였다. 또한 H자형 주택이 갖는 공간 특

징을 살펴보기 위하여 H자형의 평면을 지닌 주택들의 도면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김종량의 H자형 한일절충식주택이 도시주거로서 갖는 의미와 한계를 고찰하기 위해 실측한 주택을 분석하였다.

## 2. 김종량의 건축활동

### 2-1. 김종량의 생애

김종량의 건축활동은 표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크게 일본유학시기, 朝鮮總督府 근무시기, 建材商 경영시기와 材木店 경영시기로 나눌 수 있다.

[표 1] 김종량의 연보

년도	시기	활동과 작품
1901	출생 (전북 옥구)	
1921~1928	일본 유학	1921~22 일본高輪中學校재학 1924~28東京高等工業學校재학 한국기독교청년회간사 1925 잠시 귀국, 결혼
1927~1931	朝鮮總督府內務局建築係, 官房會計科근무	1928~30 朝鮮建築會회원 1929~? 朝鮮工學會간사
1932~1936	建材商경영 (필운동 36) 설계업	베제학교 강당 진주의 성당 혜화동 주택
1936~1945	京城材木店경영 (중학동 10) 주택사업	중학동 주택단지 삼청동 주택단지 개동 주택 돈암동 주택단지
1936~	정치활동 언론활동 교육활동	1939.06 京城府議당선 1936 한성일보 부사장 1947 군산신문 사장 1948 군산중앙여자중학교설립 1949 군산동중학교설립 1951 군산여자고등기술학교설립 1952 한성일보 사장 1955 대동신문 부사장 한국독립당 제정의원
1962	별세	

자료: 김란기, 「한국 근대화과정의 건축제도와 장인 활동에 관한 연구: 개량전통주택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대학원, 228-240쪽, 1990. 를 토대로 인명부, 정기간행물 등을 참고하여 재구성<sup>8)</sup>

4) 김종량의 건축활동에 대한 연구로는 김란기에 의한 박사학위논문(김란기, 「한국 근대화과정의 건축제도와 장인활동에 관한 연구: 개량전통주택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대학원, 1990.)과 연구자에 의한 석사학위논문(백선영, 「1930년대 김종량의 주거실험과 H자형 주택」,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대학원, 2005.)이 있다. 김란기의 박사학위논문에서는 근대화과정에서의 계반사회·건축의 변화 등을 통하여 건축조직과 제도 및 장인의 기술활동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그 성격을 조망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개량전통주택건축건설업자 중 한 명인 김종량의 건축활동과 작품을 분석하였다. 연구자에 의한 석사학위논문에서는 김종량의 새로운 건축시도로서 혜화동 H자형 한옥과 삼청동 H자형 한일절충식주택의 의미를 고찰하였다.

5) H자형 주택이란 대지 중앙에 H자형의 건물이 놓여 그것의 중심으로 진입을 하는 형식을 의미한다. 따라서 뒷마당을 위요하는 형식인 ㅁ자형 주택도 H자형 주택과 같은 형식이라 볼 수 있고, 본 연구에서는 ㅁ자형 주택도 H자형 주택과 동일하게 다루었다. (ㅁ자형 주거는 전봉희, 「전남 보성지역의 ㅁ자형 주거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14권 제8호, 1998. 에서 논의된 바 있다.)

6) 『東亞日報』, 『朝鮮日報』, 『每日新報』, 『朝鮮と建築』, 『別乾坤』, 『三千里』, 『朝光』 등

7) 혜화동 22-24번지 주택은 2003년 9월, 삼청동 35-82, 35-90, 35-202번지 주택은 2004년 6~8월 서울대학교 건축사연구실에서 실측조사하였다. (2009년 2월 현재 혜화동 22-24번지 주택, 삼청동 35-81, 82, 86, 90, 100, 202, 213 한일절충식주택이 남아있다.)

8) 참고한 인명부로는 『신문백년인물사전』, 『한국의

김중량은 전북 옥구에서 태어나, 1921년 일본 동경으로 건너가 高輪中學을 거쳐, 東京高等工業學校 건축과에 입학하여 1928년 졸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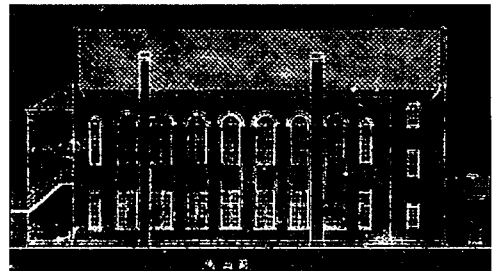
1920~1930년대 우리나라에는 ‘동경유학생’이라는 그들만의 문화가 존재하였으며<sup>9)</sup>, 실제로 이들은 『學之光』 등의 잡지를 펴내기도 하였다. 동경에서 중학, 고등공업학교를 수학한 그도 예외는 아니어서, 동경고공 재학 당시 한국기독교청년회간사 등을 역임하면서 한국인 유학생들과 활발한 교류를 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후 협업을 하였던 동경건물회사의 박원용과 건재상 시절 그에게 설계 청탁을 하였던 건축주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시기에는 일본 주거에 대한 지식을 습득한 것으로 추측되며, 이는 귀국 후 日本式住宅과 韓日折衷式住宅을 설계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귀국 전에 이미 朝鮮總督府에 취직이 된 김중량은 1927년부터 1931까지 약 5년간 박길룡, 김동수 등과 함께 內務局建築係, 官房會計科에서 근무하였다. 이 시기 그는 朝鮮建築會회원과 朝鮮工學會간사<sup>10)</sup>를 역임하였고, 당시 대표적인 잡지였던 『別乾坤』에 주택전문가로서 주거 문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기고하기도 하였다<sup>11)</sup>.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총독부 재직

시기에는 김중량이 우리나라 건축계에서 상당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김중량은 朝鮮總督府에서 나와 1932년 이후 필운동 36번지에서 건재상을 운영하였다. 이 시기에는 일본유학 및 朝鮮總督府 근무 시절 알게 된 지인들의 청탁을 중심으로 건축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의 작품으로는 배재학교 강당, 진주에 위치한 성당, 해화동 주택 등이 있다.

이 중 배재학교 강당은 1932년 9월 26일부터 공사에 착수하여 10월 22일 기공식을 거행했던 건물이다<sup>12)</sup>(그림 1). 착공 당시 주춧돌 아래에 당시의 신문, 학생 명부, 학칙 및 설계자가 쓴 계약서 사본(그림 2), 大講堂 建築의 經緯<sup>13)</sup>를 기록한 문서 등을 상자 속에 담아서 묻었으며, 이는 2001년 2월 9일 배재학당을 철거할 때 발견되었다<sup>14)</sup>(그림 3).



<그림 1> 배재학교 대강당 우측면도  
(자료: 『동아일보』, 1932.10.22.)

현대건축, 건축가, 『京城商工名錄』, 『朝鮮技術家名簿』. 이 있으며, 정기간행물로는 『朝鮮日報』, 『別乾坤』이 있다.

9) 황석우, 「동경 유학생과 그 활약」, 『삼천리』, 22-25쪽, 1933.02.

10) 조선공화회는 1929년 3월 3일 창립되었으며, 중등공업학교 출신과 공업기술에 다년간 종사한 사람들의 모임이었다. 대다수의 회원은 한국인으로 구성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 협회는 당시 공업기술가를 망라한 것이었으며, 정세권, 김중량 등이 창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박길룡 등의 건축가도 이 협회에 참가하였다. (『동아일보』 1929.03.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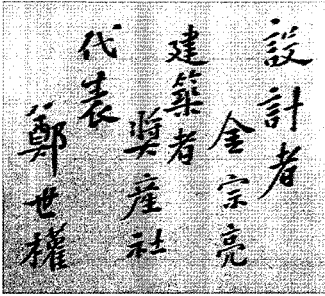
11) 이는 「너름과 조선사람」이라는 주제로 음식, 의복, 주택, 건강, 문학 분야의 전문가가 각각 자신의 생각을 펴려한 글이며, 김중량은 여기서 주택 분야를 담당했다.

12) 『동아일보』 1932.1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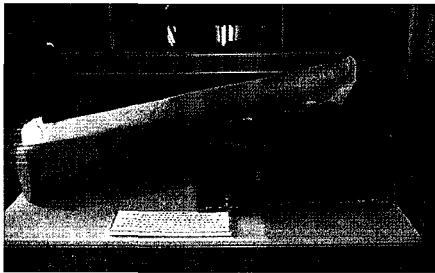
13) 「대강당건축의 경위」 제하의 문서에는 이 건물의 역사와 함께 건립의 경위가 소개되어 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이 건물의 설계가 여러 명에 의해 시도되었으나 결국 김중량, 김동수에 의한 설계안으로 지어졌다는 것이다.

...그의 설계에 관하여는 1933년 이전에 이원식씨가 한 것이 한 것이 교시이 그 후미인 vorter씨등 수인의 설계가 있었으나 다 ?용되지못하고 1932년 하휴부터 김중량, 김동수 양씨에게 위탁한 것이 현실계이다...

14) 『동아일보』 2001.03.14.



<그림 2> 배재학당의 설계계약서  
(자료: 연구자 촬영)



<그림 3> 배재학당 철거 당시 발견된 문서와 상자  
(자료: 연구자 촬영)

김종량은 1936년 중학동 10번지에 「京城材木店」을 개점한 이후 주택 경영업자들과 협업을 하면서 경성부에 많은 중소규모 도시주택을 건설하였다. 이 시기 그는 경성상공명부, 조선기술가명부 등에 등재되며, 1943년 건축대서사 시험에 합격하여 종로지부에 소속된 한국인 건축가 4명 중 한 명<sup>15)</sup>이 된다.

경성재목점 경영 시기인 1930년대 후반부터 김종량은 정치, 언론, 교육 활동을 시작하여, 경성부의원, 한국독립당 재정의원 등을 역임하였으며, 한성일보 등의 신문을 창간하였고, 군산여자중학교 등의 학교를 설립하였다. 그는 1962년 별세하였다.

## 2-2. 김종량의 도시주택 인식과 건설

### (1) 도시주택에 대한 인식

15) 종로지부 한국인 건축대서사는 강윤, 김종량, 박인준, 김세연이다. (송윤, 「한국근대건축의 발전과정에 관한 연구: 1920년대 후반에서 1960년까지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대학원, 36쪽, 1993.)

김종량의 주택에 대한 관심은 그의 일생을 걸쳐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특히 그는 당시 경성부 도시주택문제와 전통한옥의 개량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의 글을 통해 이러한 생각을 살펴 볼 수 있다.

...현대 조선 사람의 주택을 보면 대부분은 주택의 本意에 불합리한 점이 허다하다.

...都市美는 그 도시 거주자의 소유임으로 都市美는 대중적 美가 되어 할 것이다..

...조선 사람의 장래 주택, 주택을 신축하는 것과 재래 가옥을 우리 생활에 적응하도록 최소 조건 하에서 개축하는 것. 두 가지를 연구하여 할 것이다....<sup>16)</sup>

이러한 그의 생각은 고등교육을 받은 다른 건축가들과는 달리, 후에 다양한 형태의 중, 소규모 도시 주택을 공급하게 된 하나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가 京城府議員 선거를 위해 냈던 일간지

### 推薦人一同白

微言 關士이다

金君은 東京高等工業學校 文藝省教員養成所出身으로 朝鮮總督府에 奉職하였고 現在 住宅建築, 土木設計 木材商等을 經營하는바 府政의 宿願인 教育, 土木, 住宅의 擴充刷新問題를 貫徹할 鬪士...<sup>17)</sup>



京城府會議員 立候補 金宗亮

<그림 4> 신문광고  
(자료: 『조선일보』 1939.05.19.)

의 광고<그림 4>와 당선 후 실린 잡지의 인터뷰를 살펴보면, 김종량은 정치, 언론 활동을 하던 시기에도, 주거문제에 관한 자신의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現在 住宅建築, 土木設計 木材商等을 經營하는바... 府政의 宿願인 教育, 土木, 住宅의 擴充刷新問題를 貫徹할 鬪士...<sup>17)</sup>

16) 김종량, 「너름과 조선사람-住宅으로 본 朝鮮사람과 너름」, 『別乾坤』, 107-111쪽, 1930.06.

17) 『조선일보』 1939.05.19.

(2) 주택작품

김중량의 작품 중 대다수는 주택작품이었으며, 이들은 다양한 형식으로 계획되었다. 선행 연구인 김란기(1990)를 통해 중학동 주택단지, 삼청동 주택단지, 계동, 돈암동 주택단지가 김중량의 작품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연구자의 조사를 통해 혜화동 한옥 역시 그가 설계하였음<sup>18)</sup>이 확인되었다[표 2].

김중량은 혜화동 22-24, 27번지에 건축주의 청탁으로 중규모의 한옥을 두 채 설계하였으며, 이중 현재 22-24번지 주택만이 남아있다. 중학동 10번지 일대에는 현재 일부가 남아있는 일본식 주택과 도시형 한옥을 여러 채 건설했다. 또한 삼청동 35번지 일대에는 현재 7채가 남아있는 韓日折衷式住宅을 여러 채 공급하였다. 계동 128번지에는 洋屋과 한옥을 건축하였으나 모두 소실되었다. 이후 그의 마지막 개발 지역인 돈암동 주택단지의 동선동 3가 일대에는 대규모로 도시형 한옥을 100여 채 이상 공급하였고, 현재 일부 남아있다. 이중 혜화동 한옥과 삼청동 한일절충식주택이 특별한 유형인 H자형 평면형태를 가지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실측조사 및 분석하였다.

[표 2] 김중량의 주택작품

	위치	특징	사진
혜화동 한옥 (1934)	혜화동 22-24, 22-27번지	· H자형 평면의 한옥 · 혜화동 22-24번지 존속 · 건축주의 청탁에 의해 건축됨	
중학동 주택 단지 (1936)	중학동 10번지 일대	· 일식주택, 도시형 한옥의 병존 · 일부 존속 · 경성재목점 경영 이후 최초의 단지 개발 지역	 해당지역의 일식주택 사례

18) 고춘섭, 『하늘과 땅 사이에서 순원 신의경 권사 전기』, 금영문화사, 2001.

삼청동 주택 단지 (1937~42년경)	삼청동 35번지 일대	· 도시형 한옥 50~100여 채 건설 중 · 한일절충식주택 10여 채 건축 · 한일절충식주택 7채 존속 · H자형 평면의 한일절충식주택	
계동 주택 (1940년경)	계동 128번지	· 양옥, 한옥이 각각 1채 · 소실	
돈암동 주택 단지 (1940~45년경)	동선동 3가 일대	· 도시형 한옥 100여 채 이상 건설 · 일부 존속 · 토지구획정리사업 돈암지구	 해당지역의 도시형 한옥 사례

3. H자형 주택의 사례

3-1. 김중량의 H자형 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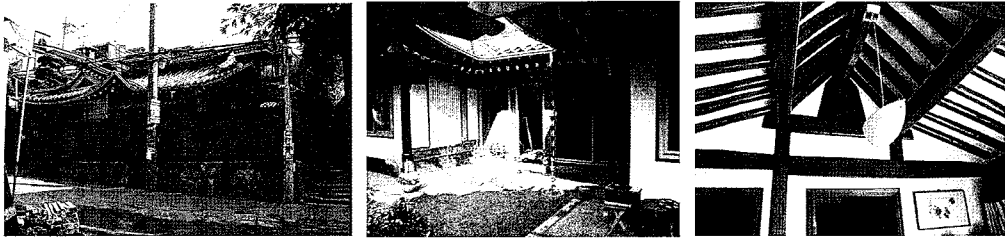
현재까지 확인할 수 있는 김중량의 H자형 주택으로는 혜화동 H자형 한옥과 삼청동 한일절충식주택이 있다.

(1) 혜화동 H자형 한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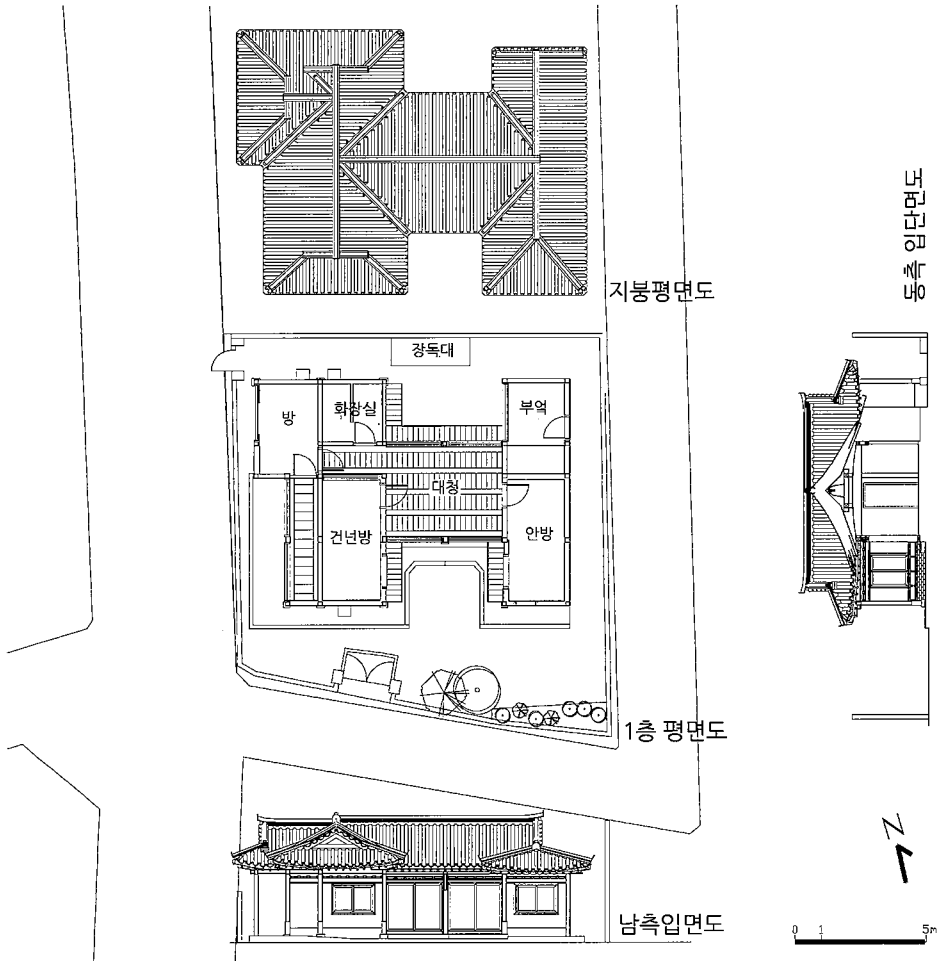
김중량은 건재상을 경영하고 있던 시기인 1934년, 박동길, 신의경 부부의 청탁으로 혜화동 22-24번지와 22-27번지에 동일한 형태로



<그림 5> 혜화동 22-24, 22-27번지 위치



<그림 6> 혜화동 22-24번지 H자형 한옥 (자료: 서울대 건축사연구실 촬영)



<그림 7> 혜화동 22-24번지 H자형 한옥의 원형 추정도  
(자료: 서울대 건축사연구실 실측조사, 연구자 도면작성)

한옥 두 채를 설계하였다. 이 부부는 혜화동 22번지 대지 중 일부를 사들여 일본 유학시절 친분이 있던 김종량에게 같은 형태의 한옥을 나란히 지어줄 것을 부탁한 것으로 보인다. 건

축주가 당시의 지식인으로서 주거에 대한 관심이 컸기 때문에 김종량은 이 주택에 자신의 생각을 담을 수 있었을 것이다<sup>19)</sup>.

19) 박동길과 신의경은 일본유학 후 귀국하여 각각 서울 공대, 인하공대와 이화여대의 교수직을 역임하였다. 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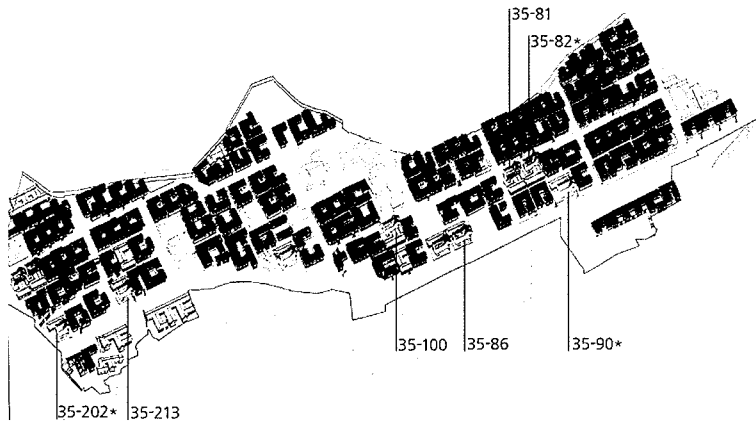
김중량의 혜화동 H자형 한옥은 대지 중앙에 놓여있는 H자형 건물과 그 앞, 뒤로 생성된 독립된 두 개의 마당으로 구성된다. 도로에서의 출입은 남측과 서측의 두 개의 문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주택 내·외부의 출입은 도로측 채의 마루를 통한 방법, 前庭으로 향하는 대청을 통한 방법과 後庭으로 향하는 대청을 통한 방법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실의 배치는 주공간과 부속공간이 남북으로 분리되어 있고, 이를 중심공간인 대청이 연결하고 있다. 이 주택의 입면은 전면인 남측면과 도로면인 서측면이 강조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강조는 지붕의 형태와 부연 등의 목구조 요소를 통하여 나타난다(그림 6, 7).

(2) 삼청동 H자형 한일절충식주택

경성부의 중요한 주거지역이었던 삼청동의 35번지는 주택 경영업자였던 정희찬, 정대규 부자가 대지를 朝鮮總督府로부터 불하받아 1930년대 중반부터 1940년대 초반까지 단계적으로 개발한 중, 소규모 주택 단지이다<sup>20)</sup>. 이 과정에서 김중량은 정대규와 동업하였고, 건설

된 당시부터 현재까지 흔히 ‘오오카베(おおかべ)집’이라고 불리는 韓日折衷式住宅을 설계, 공급하였다<sup>21)</sup>. 이러한 삼청동 H자형 한일절충식주택의 주된 특징은 도로에 면한 채는 일본식 주택의 형식을 띄고, 대지 깊숙이 위치한 채는 한옥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체 주택의 배치와 실의 배치는 몇 년 전에 건축되었던 혜화동 주택과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즉 삼청동 주택도 대지 중앙에 H자형의 채가 놓임으로 인해 외부공간이 前庭과 後庭으로 구분되며, 주공간과 부속공간이 남북으로 분리되어 있다. 하지만 이 주택은 삼청동 35번지의 대규모 개발이라는 건축배경과 일본식 요소의 도입으로 인해 혜화동 주택과는 다른 특징을 보인다. 즉, 혜화동 주택에서의 마루를 통한 서측 출입구가 삼청동 주택에서는 현관으로 대체되었고, 전면과 도로면의 강조는 지붕형태와 목구조 요소뿐만 아니라 도로에 면한 2층의 일본식 채, 대청의 과장된 칸의 나뉠<sup>22)</sup> 등으로 표현되고 있다(그림 9,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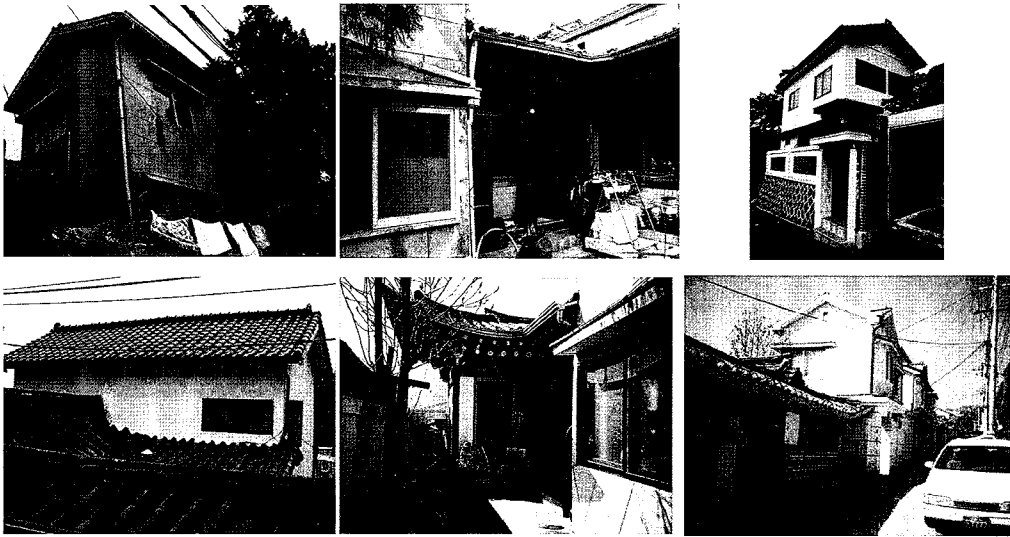


<그림 8> 1962년 항공사진을 통해 추정된 삼청동 35번지 주거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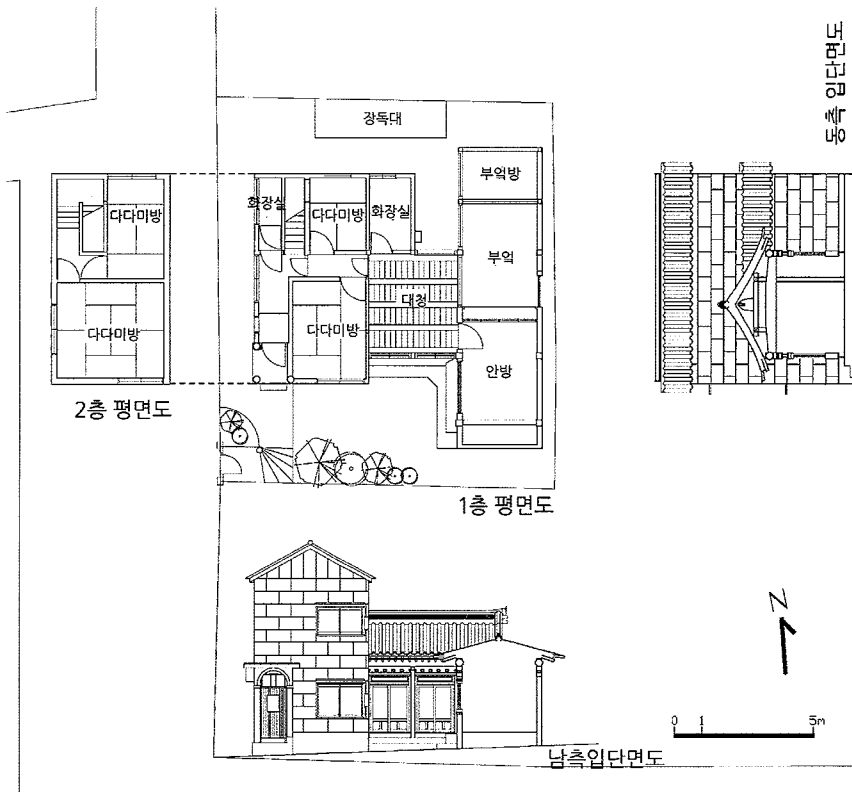
(번지 표시: 현존 韓日折衷式住宅, \*표시: 연구자가 실측조사한 주택)  
 (자료 : 서울특별시, 『서울 도심부 발전계획 도심부 도시조직의 원형과 변화』, 122쪽, 2004.를 바탕으로 연구자 표시)

한 사실은 두 부부의 전기(박동길(1981), 고춘섭(2001))와 현재 혜화동 22-24번지의 한옥에서 거주하는 그들의 자제분(박문희)과의 인터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20) 삼청동 35번지 지역이 4단계의 필지분할 과정을 거쳐 형성, 공급되었음은 성태원, 「서울 삼청동35번지 도시한옥주거지의 도시건축유형학적 특성」, 석사학위는



<그림 9> 삼청동 35번지 H자형 韓日折衷式住宅 (자료: 연구자 촬영)



<그림 10> 삼청동 35-90번지 H자형 韓日折衷式住宅의 원형 추정도  
(자료: 서울대 건축사연구실 실측조사, 연구자 도면작성)



3-2. 동시기의 유사사례와 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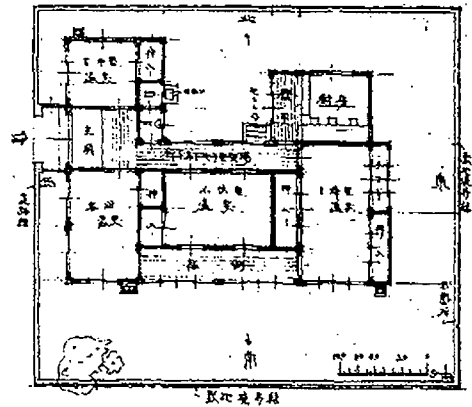
H자형의 평면을 갖는 주택은 드물기는 하지만<sup>23)</sup> 20세기 초 이후 몇 개의 사례<sup>24)</sup>를 찾을 수 있고, 1930년대 건축가들의 작품과 계획안 속에서도 이를 발견할 수 있다.

1920년대 이후로 건축가들과 지식인들에 의해서 시작된 전통 주택의 개량에 관한 논의는 1930년대에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또한 1930년대 이르러 대량으로 공급된 도시형 한옥은 주요실이 南面할 수 없고, 각 실 사이의 관계가 유기적이지 못하며, 마당이 하나의 용도밖에 사용할 수 없다는 점 등이 당시의 건축가와 지식인들에게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sup>25)</sup>. 이와 같은 한옥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건축

가들은 자신의 생각을 담은 평면형을 제시하였다. 이렇게 제안된 작품 중에서 기존의 증정식의 H자형, 트크자형 주택 평면형식과는 다른 H자형의 평면을 찾아볼 수 있다.

(1) 朝鮮住宅改良試案 第4案<sup>26)</sup>

1930년대 주택난에 대하여 1940년 4월 朝鮮建築會의 三部委員會(주택위원회)에서 「朝鮮의 中流住宅調査 第1次報告」를 발표하고, 1941년 7개의 「朝鮮住宅改良試案」을 제시하였다. 이는 30년대의 증류주택을 다양한 분야에 걸쳐 조사 연구한 결과를 자료로 구축한 것으로 조선주택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을 고려하여 개량주택의 설계요항과 다양한 개량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sup>27)</sup>. 이 중 마지막 안인 제 4안은 H자형(凹자형)을 선택하여 마당을 前庭, 後庭의 두 개로 구분하고 있다(그림 11).



<그림 11> 조선주택개량시안 제 4 안  
(자료: 朝鮮建築會, 『朝鮮と建築』, 22쪽, 1941.04.)

(2) 경운동 민병옥 가옥(閔丙玉 家屋)<sup>28)</sup>

26) 이 설계안은 1941년 『朝鮮と建築』에 실려 있지만, 30년대의 주택을 조사한 후 그에 대한 대안으로 계획된 안이라는 점에서 1930년대의 안이라고 볼 수 있다. 대지면적은 58.66평, 건축면적은 21.22평이며, 개량요점은 '대청을 폐지하고 온돌을 둔다. 주된 실은 南面하도록 한다. 주방은 北面하도록 한다.'이다.

27) 김미경, 앞의 논문, 202-204쪽.

28) 서울특별시 지정 문화재 지정명칭 변경 계획 공고(제2008-2089호)에 의해 이전 '慶雲洞 민익두家'에서 '慶雲洞 閔丙玉 家屋'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현재 북측

21) 현재 남아있는 삼청동 35번지 한일절충식주택은 7채(35-81, 35-82, 35-86, 35-90, 35-100, 35-202, 35-213번지)이며, 이들의 (구)토지대장을 통해 김중량이 이를 공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중 35-82, 35-90, 35-202 번지 주택을 실측조사하였다.

'오오카베'(おおかべ: 大壁): 벽의 마감 면을 기둥면보다 외부에 두어, 기둥면이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벽(日本建築學會, 『建築學用語辭典』, 岩波書店, 71쪽, 19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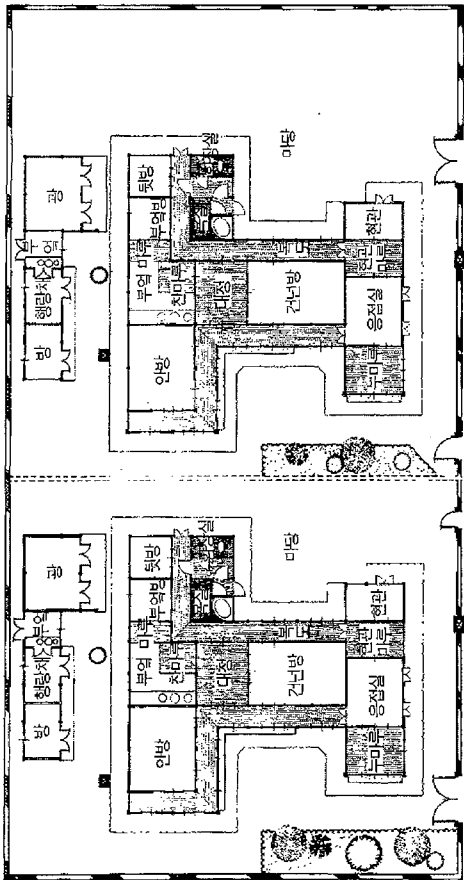
22) 삼청동 35-90번지 한일절충식주택에서 대청의 남측면(전면)은 2칸으로 구성되어 3,300mm의 너비를 갖는다. 이는 내부 체의 남측면이 약 2,900mm 폭의 한 칸으로 구성되는 것과는 큰 차이를 보이며, 이러한 차이는 구조의 문제와는 상관없이 의도적으로 대청의 칸을 나누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현상을 박철진, 앞의 논문, 50-61쪽.에서는 1930년대까지 도시형 한옥을 매매함에 있어서 평이 아닌 칸을 기준으로 가격을 책정하였으며, 대청 전면 칸의 수는 상품의 고급화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의 의미를 가졌기 때문에, 대청 칸의 나눔은 상품적인 특징에 의한 과장된 표현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삼청동 한일절충식주택 역시 1930년대 도시형 한옥과 함께 대규모로 공급되었으며, 한옥 체는 주변 도시형 한옥과 동일한 폭을 갖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23) H자형은 凶宅의 평면인 H자형으로 여겨져 왔다.(주남철, 『한국의 전통민가』, 아르케, 80-84쪽, 2000.)

24) 20세기 초 H자형 평면을 갖는 사례로는 김택준 가옥(강원 양양, 20세기 초), 이태헌 가옥(서울, 1900년대 추정), 이금재 가옥의 안채(전남 보성, 1900년 전후), 이용우 가옥의 안채(전남 보성, 1908년 전후) 등이 있다.

25) 김미경, 「조선주택개량시안의 평면적 연구」, 대한건축학회학술발표논문집, 제15권 제1호, 201-202쪽, 1999.

「민병옥 가옥」은 1930년대 중반 H자형 주택 두 채를 박길룡이 경운동에 지은 주택이다. 1930년대는 박길룡이 주택개량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 시기에 지은 민병옥 가옥은 주택에 대한 그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중요한 작품이다. 전체적으로 대지는 네모반듯하고, H자형 채가 그 중앙에 놓여있다. 이 주택은 H자형의 평면에 의해 서로 다른 세 개의 마당이 규정되며, 크게 두 개의 출입구를 갖는다(그림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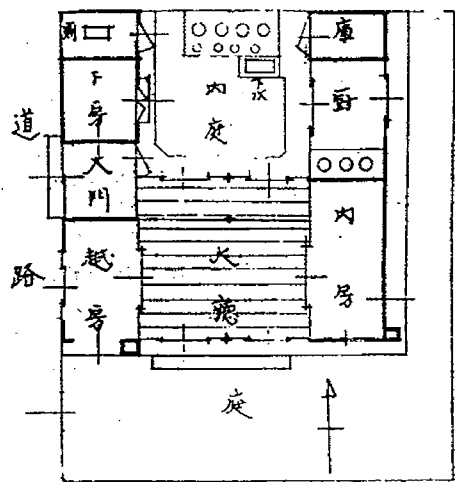
<그림 12> 경운동 민병옥 가옥의 원형 추정도  
(자료 : 홍대형, 『한국의 건축문화재 서울편』, 기문당, 348쪽, 2001.)

가옥은 서울시 경운동 閔家茶軒이라는 이름의 음식점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남측 가옥은 서울 율계동으로 이전되어 月溪洞 恪心齋라는 명칭의 예안이씨 제실로 사용되고 있다.

(3) 주택경영회사의 시범주택

1941년 『朝鮮と建築』 주택문제 특집호(20輯 4號)에 실린 박길룡의 「朝鮮住宅雜感」이란 글 속에서 8년 전(1933년) 주택경영업자들이 주택개선의 목적으로 건설한 유형으로 H자형(凹자형) 주택이 소개된다. 이 주택은 주택경영업자들이 그들의 도시형 한옥을 개선하여 시범적으로 제안한 주택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주택을 살펴보면 도로와 만나는 대지경계선에 문간채가 접하고, 대문간을 통해 內庭으로 접근하는 점에서 도시형 한옥과 비슷한 양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도로 측을 제외한 도로경계선에 건물이 접하지 않고 그로 인해 南面하는 內房, 越房, 大廳 등의 주요실을 갖으며, 北面하는 內庭과 별도로 보다 내밀한 남측마당을 갖는다는 측면에서 도시형 한옥과 큰 차이를 보인다(그림 13).



<그림 13> 주택경영업자들의 시범주택  
(자료 : 박길룡, 「朝鮮住宅雜感」, 『朝鮮と建築』, 15-18쪽, 1941.04.)

4. H자형 한일절충식주택의 의미와 한계

4-1. 도시주거로서의 성격

김종량은 전통 한옥을 우리 생활에 적응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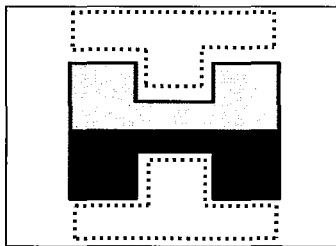
도록 최소한 개축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에 대하여 언급했는데, 채광과 환기 등의 환경적 문제로 인하여 방 배치와 건물 배치가 기존 가옥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 지적하였다.

...조선 사람의 장래 주택. 주택을 신축하는 것과 재래 가옥을 우리 생활에 적응하도록 최소 조건 하에서 개축하는 것. 두 가지를 연구하여 할 것이다. ...조선 가옥도 구조 양식 등은 그樣 두드러도 방배치는 절대로 개선해야 채광 환기를 충분히 하여 日後에 遺憾이 업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29)

이는 당시 경성부에서 널리 퍼져있던 ㄷ자, ㄷㄷ자 형의 한옥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1930년대 경성부 도시주거에 대한 대안으로 'H자형'을 혜화동과 삼청동에서 각기 다른 형식으로 시험한 것으로 여겨지며, 이는 대규모로 개발된 삼청동에서 더욱 확연하게 나타난다.

(1) 전/후 공간의 구분

H자형 주택은 그 독특한 평면에 의해 앞, 뒤 위요된 마당과 이로 인한 보다 넓은 마당과의 접면을 갖는다. 이러한 특성은 기능, 위치 등 각각의 성격에 적합한 마당을 구성할 수 있게 해주며, 이와 접한 내부공간과 관련되어 내부평면을 앞/뒤로 구분시켜 준다(그림 14).



<그림 14> H자형 주택의 전후 공간의 구분

a. 앞마당과 뒷마당의 구분

29) 김중량, 앞의 글, 111쪽.

김중량은 기존 주택의 정원이 건물과 구분되지 않아, 실용적이지 못하게 쓰이고 있음을 비판하였다.

(2) 주택의 주위환경에 필요한 조항

1. 주택과 정원을 독립적으로 하되, 정원은 觀相的 本義를 廢하고 실용적 위생적 본의로 할 것...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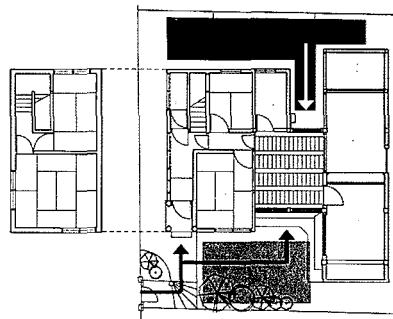
이는 기존 한옥이 단일한 마당을 에워싼 중정형 구조를 갖기 때문에 각 실로 진입하는 동선들로 인해 마당이 효과적으로 쓰이고 있지 않음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는 세탁물 등을 건조할 작업공간과 樹木 등을 가꿀 수 있는 조경 공간에 대한 필요도 언급하였다.

(2) 주택의 주위환경에 필요한 조항

...세탁물, 의복의 건조할 설비, 物置所의 필요...31)

따라서 삼청동 H자형 韓日折衷式住宅에는 앞에서 살펴본 전/후 공간의 분절이 가능한 H자형 주택의 성격에 따라 주출입과 관상의 목적으로 사용가능한 前庭과 부출입과 가사의 목적으로 사용가능한 後庭이 구분되어 계획되어 있다32)(표 3).

[표 3] 삼청동 H자형 韓日折衷式住宅의 외부공간  
(\* 검은색 : 後庭 / 회색 : 前庭 / 화살표 : 진입)



· 前庭은 현관 앞의 출입을 위한 공간과 대청 앞의 관상을 위한 공간이 계획되어 있다.  
· 後庭에는 장독대, 우물 등이 위치한다.

30) 김중량, 앞의 글, 110쪽.

31) 김중량, 앞의 글, 110-111쪽.

32) 이러한 특징은 김중량의 혜화동 H자형 한옥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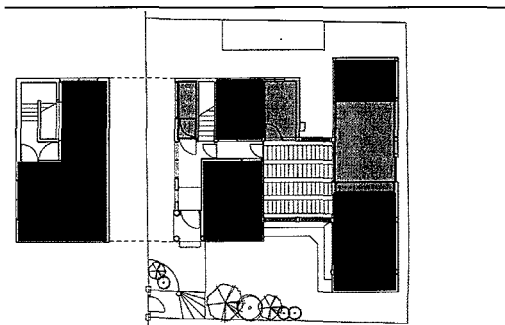
b. 주요실과 부속실의 구분

김종량은 기존 주택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실의 배치를 들었으며, 각 실은 채광, 환기 및 각 실사이의 접근성의 문제를 고려해서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 (1) 건강을 保持함에 필요한 건전 주택으로써 업지 못할 만한 구조상 조항.
- 7. 채광 환기를 충분히 하도록 할 것.
- 8. 방배치는 가사에 시간이 걸리지 안이 하도록 할 것...
- ...방배치는 절대로 개선해야 채광 환기를 충분히 하여 日後에 遺憾이 업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sup>33)</sup>

이는 당시 건축가들에 의해 제안되었던 주택개량 논의와도 일치하며, 그는 이러한 점의 개선을 위해 H자형 평면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삼청동 H자형 한일절충식주택의 내부실의 구성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안방, 건넌방 등의 주공간은 南面하여 前庭에 면하고, 부엌, 화장실 등의 부속공간은 北面하여 後庭에 면한다<sup>34)</sup>(표 4).

[표 4] 삼청동 H자형 韓日折衷式住宅의 실 배치  
(\* 검은색 : 주공간 / 회색 : 부속공간)



- 안방, 사랑방 등 주공간은 南面하여 前庭을 면하고 있지만, 작은방과 부엌방들은 後庭을 면하고 있다.
- 화장실, 부엌 등의 부속공간은 北面하여 後庭에 면하고 있다.
- 이 영역들은 중심 대청과 복도를 통해 결합된다.

33) 김종량, 앞의 글, 107-111쪽.

34) 삼청동 주택에서는 주공간과 부속공간이 완전하게 남북으로 분리되지 않는데, 이는 혜화동 한옥에 비해 실

또한 1930년대 당시 제안되었던 H자형 주택들의 내부실은 모두 기능에 따라 남/북으로 구분하여 배치되었지만, 김종량의 주택은 대청이 적극적으로 이용되도록 계획되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김종량 주택에서 대청은 주택 중앙에 위치하여 분리된 前庭과 後庭, 각 실들을 연결한다. 이는 복도 및 뿔마루 등을 통해 연결하는 동시기의 다른 H자형 주택에 비해, 복도 등으로 소비되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내부 공간 효율이 높고, 동선의 길이가 짧아져 보다 편리하게 내부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표 5).

[표 5] 실 배치의 비교

	대청의 역할	주요실	부속실
김종량의 H자형 한일절충식 주택	주택 중앙에 위치 前庭과 後庭, 각 실을 연결	남측	북측
조선주택개량 시안 제4안	존재하지 않음 (각 실은 속복도를 통해 연결)	남측	북측
경운동 민병옥 가옥	작은 대청이 존재 (각 실은 복도를 통해 연결)	남측	북, 서측
주택경영업자의 시범주택	주택 중앙에 위치, 前庭과 後庭을 연결 (각 실은 대청 및 뿔마루를 통해 연결)	남측	북측

결국 성격별로 구성된 정원을 갖고, 주요실이 부속실들과 구분된 김종량의 H자형 韓日折衷式住宅은 한 채의 주택을 분리하여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는다. 즉 借家를 위한 공간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1930년대 경성부에서의 주택부족에 대한 대응이라 할 수 있다<sup>35)</sup>.

도로에 면하는 일본식 채에는 현관을 통한

의 개수가 늘어나면서 발생한 문제라고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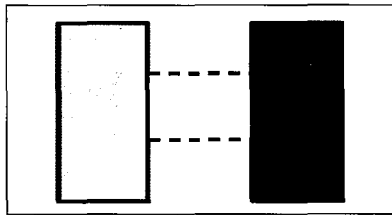
35) 이러한 점은 주택난이 보다 덜 심했던 1930년대 초반 건축주의 청탁에 의해 지어진 혜화동 한옥보다 1930년대 후반에 대규모로 지어진 삼청동 H자형 韓日折衷式住宅에서 확연하게 나타난다.

별도의 출입 동선과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고, 부엌방 역시 後庭을 통한 별도의 진입 동선이 있다. 즉 안방 등 주된 공간과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 등을 갖는 주거 유닛이 마련되는 것이다. 이러한 독립된 유닛에서 중요한 공간인 안방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많은 켄을 지나야만 가능하다. 이는 도로와 면하고 있는 일본식 채를 행랑채 혹은 사랑채로 해석하여, 借家를 위한 공간을 마련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부엌방 역시 주변의 작업공간들과 연계되어 독립적으로 이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실측조사 과정을 통하여, 35-82, 35-90, 35-202번지 주택의 일본식 채의 2층과 부엌방 주변은 현재 혹은 예전에 임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좌/우 공간의 구분

H자형 평면을 갖는 주택들은 H자라는 형태를 좌우의 |자형의 결합으로 보고, 이에 따라 구분된 공간구성을 취할 수 있는 특징을 갖는다. 즉 중심 채를 사이에 두고 좌, 우의 채가 붙어 있는 형식을 가지며, 이때 각 구성부에는 각기 독립적인 대응의 여지가 있다(그림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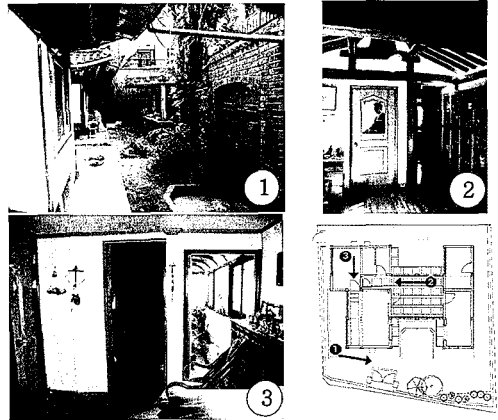


<그림 15> H자형 주택의 좌/우 공간의 구분

김중량은 H자형의 평면을 도로측의 |자형 채와 그 내부의 |자형 채로 구분하여 해석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도로측 입면의 강조를 통해 더욱 강화되고 있다.

a. 도로측 채와 내부 채의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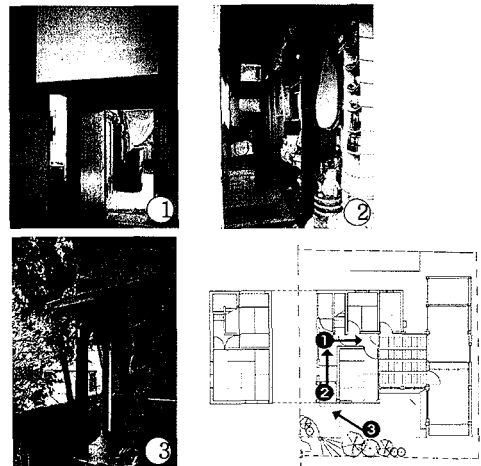
혜화동 주택을 살펴보면, 대청을 통한 주진입 이외에도 도로측에 면한 뒷마루와 뒷방을



<그림 16> 혜화동 한옥의 도로측 채

이용한 부진입 방식이 존재한다. 이는 도로측 채에 놓인 땃돌과(그림 16-1) 거주자 인터뷰를 통하여 확인되었다. 뒷마루를 통한 출입은 건넌방으로의 직접 진입이 불가능하며, 뒷방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비록 이러한 출입 방식은 일반적이지 않아 현재 쓰이지 않지만(그림 16-3), 김중량이 도로측 채를 의도적으로 분리하여 계획하였음을 알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삼청동 주택에서는 이러한 김중량의 의도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즉 도로측 채는 일본식 2층 주택으로 계획하여 그 속에 다다미, 현관과 복도, 복도문 등을 계획하여 한옥



<그림 17> 삼청동 한일절충식주택의 도로측 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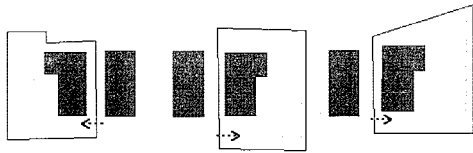
36) 실측 당시 거주자들은 뒷마루 부분을 증축하여 보일러실, 창고 등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채와는 구분된 공간을 마련하였다(그림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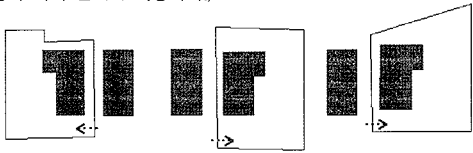
b. 도로측 입면의 강조

이렇게 분리되어 계획된 도로측 채는 가로 면에서 쉽게 인지가 가능하도록 입면이 강조되었다. 삼청동 韓日折衷式住宅의 도로측 면에는 向과는 무관하게 당시 한옥보다 고급으로 여겨졌던 2층의 일본식 채로 구성하였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sup>37)</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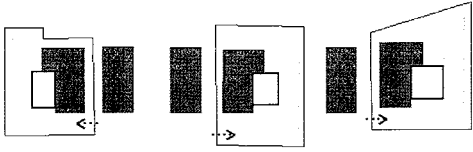
또한 삼청동 韓日折衷式住宅의 도로측 채와 내부 채의 구분 및 도로측 입면의 강조는 대규모 공급과정에서의 효율을 가져왔다. 즉 각 채를 분리하여 시공함으로써 대량생산과 대지에의 적응을 효과적으로 가능케 한 것이다.



2단계 : 대지 내부에 한옥 채가 놓인다.  
(한옥 채는 주변 도시형 한옥과 동일한 폭을 가지며, 대지의 형상에 따라 길이가 다양하다.)



1단계 : 각 대지에 도로에 면하게 복층의 일본식 채가 놓인다.  
(일본식 채는 크기와 형태가 모두 동일하다.)



3단계 : 일본식 채와 한옥 채를 연결하는 대청을 놓는다.  
(대지의 크기와 형태에 따라 대청의 폭이 조정된다.)

<그림 18> 삼청동 H자형 韓日折衷式住宅의 한옥 채와 일본식 채의 결합

현재 남아있는 주택을 살펴보면, 그것이 공

37) 또한 김종량의 혜화동 한옥의 지붕평면을 살펴보면 도로측 입면이 반대의 입면에 비해 더 높은 위계를 갖는다는 점과 도로에 면한 입면을 강조하기 위하여 애써 합각을 만들려고 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도로측 채가 내부의 채에 비해 훨씬 큰 규모를 가짐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내부의 채를 강조했던 동시기의 「민병옥 가옥」과 상반되는 현상이다.

급된 시기 및 向과는 무관하게, 먼저 주어진 대지의 형태와 크기에 알맞게 도로에 면하여 기본 원형의 I자형 일본식 채를 배치하고(1단계), 대지 내부에 I자형의 한옥 채 부분을 배치한 후(2단계), 이들을 연결하는 대청의 폭을 조정하여 각 대지의 형태와 크기에 맞춘 것(3단계)으로 추정된다(그림 18). 여기서 일본식 채는 35-82, 35-90, 35-202번지 모두 대지와 무관하게 완전히 동일한 크기와 형태를 가지며, 한옥 채는 주변의 도시형 한옥과 동일한 폭을 가지고, 길이는 대지의 크기에 따라 다양하다.

4-2. 도시주거로서의 한계

도시형 한옥이 60년대까지 꾸준히 건설된 것에 비해, 김종량의 H자형 한일절충식주택은 이후 더 이상 지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김종량 자신도 돈암동 주택단지를 개발함에 있어서는 H자형 평면 형식이 아닌, 기존의 ㄷ자형 혹은 ㄱ자형의 도시형 한옥을 대량으로 건설하였다.

(1) 공간의 비효율

1930년대 이후 김종량의 H자형 한일절충식주택이 더 이상 건설되지 않은 가장 큰 원인으로는 공간의 비효율성을 들 수 있다.

같은 시기 유사한 조건에서 건설된 도시형 한옥과 H자형 한일절충식주택의 각 공간별 면적을 살펴보면, H자형 주택에서는 각 실을 연결하기 위한 복도 등의 불필요한 공간이 많이 요구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마당이 前/後로 분리됨에 따라 도시형 한옥에 비해 남측 중심마당의 크기가 현저히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표 6]. 즉 H자형을 유지하기 위한 주택 내, 외부의 불필요한 공간 소모가 야기되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문제는 대규모로 건설될 경우 더욱 심화되는데, 대지경계선에 맞추어서 맞닿

는 주변 주택과 결합하여 연립의 형식으로 개발될 수 있는 ㄷ자형, ㄱ자형에 비해, 대지 중앙에 위치해야 하는 H자형은 대규모로 건설될수록 비효율적인 외부공간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1930년대 이후 주택의 대량 공급이 요구되는 경성부의 상황에서 H자형 한일절충식주택은 도시형 한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6] 도시형 한옥과 한일절충식주택의 면적 비교 (자료: 서울특별시, 앞의 글, 131쪽, 을 바탕으로 연구자 측정)

	35-89번지 (도시형 한옥)		35-90번지 (H자형 한일절충식주택)	
	면적 (㎡)	면적/ 대지비율 (%)	면적 (㎡)	면적/ 대지비율 (%)
대지	143.15	100.00	167.38	100.00
건물 (2층포함)	63.93	44.66	77.35 (106.96)	46.21 (63.90)
대청	12.77	8.92	12.44	7.43
안방	9.65	6.74	10.61	6.34
전체 방 (2층포함)	39.53	27.61	32.21 (54.92)	19.24 (32.81)
부엌,창고, 화장실	8.02	5.60	21.10	12.61
기타 (2층포함)	3.61	2.52	11.58 (18.50)	6.92 (11.05)
중심 마당	36.48	25.48	25.00	14.94
전체 마당	79.22	55.34	90.03	53.79

(2) 높은 건축비

또한 삼청동 H자형 한일절충식주택의 건축비는 다른 도시형 한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았음이 확인된다. 개항 이후 들어온 일본 목수는 우리나라의 목수에 비해 1.4배에서 1.6배 정도의 높은 노임을 받았다<sup>38)</sup>. 즉 일본인 목수가 시공했던 삼청동 한일절충식주택은 같은 면적의 한옥에 비해 노임에서만 훨씬 많은 비용이 소모되었을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재료

에 있어서도 일본식 채에는 기존 한옥에서 쓰이는 晩材 이외에도 외벽마감에 필요한 板材가 추가로 요구되었다<sup>39)</sup>. 결국 이러한 노임과 재료에서의 증가된 비용은 건축비 상승의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1925년 조선의 경성상업회의소에서 朝鮮建築會에 발행한 의뢰서를 살펴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sup>40)</sup>(표 7).

여기서 ‘목골철망 시멘트바름’이 삼청동 韓日折衷式住宅의 오오카베구조라고 생각되며, 이는 보통 목조에 비해 보다 높은 건축비를 가짐을 알 수 있다. 결국 전문적인 시공시스템이 구축된 도시형 한옥에 비해 별도의 기술을 갖는 목수와 별도의 재료를 사용하여 시공해야 하는 김종량의 삼청동 H자형 한일절충식주택의 건축비는 월등히 높았을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H자형 주택은 건물의 외벽이 담장이 되는 도시형 한옥에 비해, 별도의 담장을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이 요구되었을 것이다.

[표 7] 주택 건축비의 비교 (1926년) (자료: 김석순, 앞의 논문, 91-92쪽 에서 재인용)

구분	갑	을	병	지붕
목조	170	140	120	기와 지붕
목골철망 시멘트바름	175	150	130	동일
벽돌조	185	160	140	동일
막돌쌓기	230	200	180	동일
철근 콘크리트조	250	230	215	평지붕

(3) 일식주거 요소의 비토착화

당시 경성부에는 극심한 주택난 속에 관사마저 부족<sup>41)</sup>하여 관리들도 집을 구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삼청동은 朝鮮總督府

39) 김석순, 앞의 논문, 70-72쪽.

40) 김석순, 앞의 논문, 91-92쪽 에서 재인용.

41) 「관사부족으로 절절매는 총독부 관리 1천여직원」, 『조선일보』, 1939.05.19.

38) 김석순, 「1920년-1945년의 건축 주재료인 목재와 벽돌의 생산사에 관한 비교 연구」,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대학원, 표 5.6, 1991.

주변 지역이었음으로 인해, 일제시대 동안 중요한 주거지역으로 여겨졌다<sup>42)</sup>. 따라서 김종량은 삼청동에 일본인 관리들 혹은 일본식 주택에서 살고 싶은 조선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삼청동 주택에 ‘일본식 요소’를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sup>43)</sup>. 하지만, 겨울의 추위로 인하여 일본인들마저도 다다미가 아닌 온돌을 선호하였을 정도로, 당시 우리나라에서 일본식 실에서 거주한다는 것은 큰 불편함을 야기하는 일이었다. 실제로 현재 35-82, 35-90, 35-202번지의 주택들에서도 거주자들은 모두 다다미방을 온돌방으로 개조하였으며, 35-90번지를 제외하고는 주출입이 모두 현관이 아닌 대청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이 주택을 자세히 살펴보면, 일식 채와 한옥 채는 구조의 연결이 전혀 이루어져 있지 않으며, 의장적인 요소들도 상호 간에 전혀 영향을 주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그림 19).

일본식 채에 쓰인 오오카베 구조(大壁構造)는 외부로 나무기둥이 노출되지 않아 그 건물의 형식이 목구조인 것을 감추는 구조법이다. 따라서 이러한 오오카베 구조는 나무 구조재를 외부로 노출시키는 전통적인 한옥의 구조 및 의장과는 매우 상반되는 것이기에, 한옥에 단순히 ‘접합’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기후, 전통적인 건축형식에 적합하지 않았던 일식주택의 요소는 널리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김종량의 삼청동 H자형 한일절충식주택은 일



<그림 19> 삼청동 韓日折衷式住宅의 일식 채와 한옥 채의 접합 부분(35-202번지)

(자료: 연구자 촬영)

본식 채와 한옥 채의 결합이라는 새로운 시도임에도 불구하고, 도시주택으로서 인기를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이후에는 더 이상 지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예상된다.

## 5. 결론

앞에서 살펴본 김종량의 H자형 한일절충식주택이 갖는 특성과 의미를 당시 도시주거에 대한 새로운 시도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김종량은 자신의 H자형 한일절충식주택에서 H자형에 의해 만들어진 위요된 앞, 뒤의 마당을 각각 성격별로 구성하였으며, 내부를 주요실과 부속실로 구분하여 효율적으로 공간을 구성하였다. 또한 그는 H자형의 평면을 도로측의 |자형 채와 그 내부의 |자형 채로 구분하여 도시가로에 대응하는 공간 요소를 도입하였다.

둘째, 김종량은 주거부족이 극심했던 1930년대 경성부라는 배경 속에서 당시 도시주거의 문제점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평면형태, 공급방식, 재료 등 다양한 측면에서 새로운 H자형 韓日折衷式住宅이라는 도시주택 유형을 공급하였다.

42) 1931년 朝鮮總督府지질조사소에서는 삼청동의 지하수를 조사한 보고서를 출간하였고, 1934년 朝鮮總督府는 삼청공원을 정비하여 1940년에는 도시계획공원으로 고시하였고, 1943년 경성주식회사는 『三淸洞史話』(삼청동의 역사와 유적 등을 소개)를 발간하였다.

43) 실제로 인터뷰 중에 김종량의 한일절충식주택인 35-202번지 주택의 거주자가 자신의 집에 朝鮮總督府부총독이 거주하였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는 사실과 35-82번지 거주자가 35번지 주변에 일본관리가 많이 살았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증언하였다.



셋째, 하지만 김중량의 H자형 한일절충식주택은 공간이 비효율적인 점이 존재하고, 건축 비용이 비교적 높았으며, 그 속에 도입된 일식주택의 요소가 토착화되지 않음으로 인해 도시주거로서 널리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김중량의 시도는 비록 널리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당시 도시주거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현실적으로 실현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김중량의 주거실험과 관련한 보다 다양한 사례가 조사되고 연구된다면, 1930년대 경성부의 주거상황과 근대 도시주거에 대한 보다 넓은 이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 < 참고 문헌 >

1. 『東亞日報』, 1921~39.
2. 『朝鮮日報』, 1920~45.
3. 朝鮮建築會, 『朝鮮と建築』, 1922~1945.
4. 『別乾坤』, 1926.11~1934.03.
5. 『三千里』, 1929.06~1941.11.
6. 『朝光』, 1935.11~1937.04.
7. 『(구)토지대장』
8. 『(구)건축물대장』
9. 京城商工會議所, 『京城商工名錄』, 1923~1941.
10. 朝鮮工業協會, 『朝鮮技術家名簿』, 1939.
11. 日本建築學會, 『建築學用語辭典』, 岩波書店, 1993.
12. 고춘섭, 『하늘과 땅 사이에서 순원 신의 경 권사 전기』, 금영문화사, 2001.
13. 박동길, 『교수생활 50년 : 운암 박동길 박사전』, 운암지질학상 운영위원회, 1981.
14. 서울특별시, 『서울 도심부 발전계획 도심부 도시조직의 원형과 변화』, 2004.
15. 주남철, 『한국의 전통민가』, 아르케, 2000.
16. 한국건축가협회, 『한국의 현대건축, 건축가』, 2000.
17. 한국신문편집인협회, 『신문백년인물사전』, 1998.
18. 홍대형, 『한국의 건축문화재\_서울편』, 기문당, 2001.
19. 김미경, 「‘조선주택개량시안’의 평면적 연구」, 대한건축학회학술발표논문집 제15권 제 1호, 1999.
20. 백선영·전봉희, 「1930년대 김중량의 주거실험과 H자형 주택」, 대한건축학회학술발표논문집 제24권 제 2호, 2004.
21. 전봉희, 「전남 보성지역의 ㅁ자형 주거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14권, 제8호, 1998.
22. 김란기, 「한국 근대화과정의 건축제도와 장인활동에 관한 연구: 개량전통주택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대학원, 1990.
23. 김석순, 「1920년-1945년의 건축 주재료인 목재와 벽돌의 생산사에 관한 비교 연구」,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대학원, 1991.
24. 박철진, 「1930년대 한성부 도시형 한옥의 상품적 성격」,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대학원, 2002.
25. 백선영, 「1930년대 김중량의 주거실험과 H자형 주택」,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대학원, 2005.
26. 성태원, 「서울 삼청동35번지 도시한옥주거지의 도시건축유형학적 특성」, 석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대학원, 2003.
27. 송율, 「한국근대건축의 발전과정에 관한 연구 : 1920년대 후반에서 1960년까지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대학원, 1993.
28. 송인호, 「도시형한옥의 유형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대학원, 1990.

접수(2009. 2. 9)

수정(1차:2009. 5. 22, 2차:2009. 10. 15)

게재확정(2009. 10. 28)

# Kim, Jong-Ryang's H-shaped Houses in 1930s in Seoul

Baek, Sun-Young

(Ph.D Candidate, Seoul National Univ.)

Jeon, Bong-Hee

(Prof., Seoul National Univ.)

##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H-shaped houses in 1930s and examines the characters and meanings of Kim, Jong-Ryang's H-shaped houses as a new trial to urban Hanok of those days. He, who was concerned about the housing problem of Seoul, made an attempt to make various types of dwellings. Among them, this study focuses on Japanese-Korean Style H-shaped houses in Samcheong-dong.

As the alternative housing type against other urban Hanok of Seoul in 1930s, the H-shaped houses of Kim, Jong-Ryang had characters as follows : 1) H-shaped house has two special characters. First, the whole space of a single house can be divided into a left region and a right region. Second, it can be divided to a front region and a rear region. In his H-shaped houses, the left/right division was expressed as folding of space-layers in parallel with urban streets. The front/rear division was used as classification of main-living space and sub-living space. 2) KJR's H-shaped Japanese-Korean Style houses were proved to be designed as urban housing against the extreme housing shortage of Seoul in 1930s. 3) His houses however were not accepted broadly as a urban house type because the construction cost of those was higher than an average and the element of Japanese style house was not adapted to Korea.

Kim, Jong-Ryang's trial is valuable because it was the rare case of realization of many discourses as defects of existing house type. With more rigorous investigations on KJR's experiment in modern house type, we could understand the housing condition of Seoul in 1930s and modern urban houses more than before.

---

Keywords : Kim, Jong-Ryang, H-shaped House, Japanese-Korean Style House, Modern Urban Housing

---